

## 김삼불(金三不)의 판소리 연구와 ‘조선문학사’ 인식

김영희\* · 김시연\*\*

<차례>

1. 들어가며
2.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판소리 연구의 기초
3. 김삼불의 판소리 연구와 ‘산문소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4. 월북 이후 김삼불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서민소설’ 형성 과정에 대한 구상
5. 나오며

### <국문초록>

김삼불은 식민지 시기 연희전문과 해방 후 서울대를 거치며 근대문학으로서 ‘조선문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조선 시가와 판소리, 문학사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 글은 해방 후 김삼불의 시조 및 판소리 사설 교주 작업과 서울대 졸업논문인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연구, 월북 후 북한에서 서술한 ‘조선문학사’에 언급된 판소리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하여 ‘조선문학사’에 관한 그의 기획과 구상을 분석하고, 이 구도 속에서 그가 ‘판소리’를 어떻게 위치 지으려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판소리 연구와 고전문학사 기술에 미친 김삼불의 영향과 흔적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월북한 연구자 김삼불의 ‘조선문학’ 연구 성과는 그간 한국문학 연구사에서 주변화되거나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 성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문학’ 역사 구성의 진화론적 도식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는 판소리계 소설 형성 과정을 주장해온 연구자들의 문학사 구상과 학술적 상상력은 김삼불의 ‘조선문학사’ 기획에 빚진 바 크다. 이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식민과 분단으로 굴절된 ‘한국문학’ 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진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및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생, 제2저자

정한 ‘탈식민’의 지향 위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축하기 위해 김삼불의 ‘조선문학’ 인식과 ‘조선문학사’ 구상의 궤적을 추적해 보려 한다.

□ 김삼불, 신재효, 조선문학, 시조, 가사, 교주, 판소리, 월북, 분단, 조선문학사, 한국문학

## 1. 들어가며

일제 식민지 시기를 지나 해방과 분단 공간을 거치면서 근대문학의 연구 관점에서 ‘조선문학’의 범주가 형성되고 그 연구가 본격화될 무렵 ‘조선문학’의 하위범주로 ‘고전문학’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던 몇몇 핵심적인 연구자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분단과 이념의 대립 과정에서 지워지거나 잊혀진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연구자가 김태준, 고정옥, 김삼불이다. 김태준은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 ‘조선소설’을 구성하고 활판본 고소설을 중심으로 ‘조선소설사’를 서술한 인물이며<sup>1)</sup>, 고정옥은 민요 연구로 시작하여<sup>2)</sup> 월북 후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구전문학 연구를 이어간 연구자다. 김태준과 고정옥은 1920년대 중반 설치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 강좌의 수강생이자 졸업생이었으며, 김삼불은 식민지 시기 연희전문에서 수학한 뒤 해방 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교육 기관에서 ‘조선문학’을 배우고 연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삼불은 1920년 경북 경산군 태생으로, 193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41년에 졸업했고<sup>3)</sup>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

1) 이운석, 『김태준 《조선소설사》 검토』, 『동방학지』 16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2) 고정옥은 경성제국대학교 학부 졸업논문으로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1938, 1939년 졸업)를 제출하고 그것을 다듬어 1949년 수선사에서 『조선민요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과에 편입하여 1949년에 졸업했다. 6.25 전쟁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55년부터 1957년 사이에 몇 권의 교주본과 연구서를 북한에서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이후에는 북한에서의 그의 행적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다.<sup>4)</sup>

김삼불은 연희전문 시절 ‘조선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한편 ‘조선학’과 ‘민속학’의 관점에서 ‘조선문학’과 ‘조선문화’, ‘한문’ 등을 수학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해방 후 서울대학교에서 체계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판소리 연구와 시조 및 가사 주석, 문학사 서술 등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의 서울대 학부 졸업논문은 판소리와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에 대한 것이었다.<sup>5)</sup> 그는 연희전문 시절 외솔 최현배, 위당 정인보 등의 영향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수학 시절에는 특히 가람 이병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서 졸업논문을 쓰기 전 그는 이병기와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신재효의 생가 등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 3) 김삼불은 시인 운동주의 동기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1947년 열린 운동주의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맡기도 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운동주, 정음사, 1949)의 서( )에 다음과 같은 정지용의 글이 있다.(1947년 12월 28일자 기록) “그의  
 의 와 같이 틀림 없이 / 아무렴! 또 다시 다른 길로 할 것이  
 다.”(운동주(1949), 위의 책, 10쪽.) 운동주와 그의 관계, 연희전문 시절 김삼불이 쓴 몇 편의 시와 다른 글들에 대해서는 이 글의 논지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한다.
- 4) 유춘동이 1958년 이후 김삼불의 행적에 대한 몇 가지 추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그의 이후 행적을 확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유춘동, 『남북이 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2015.) 다만 해당 시기 전후에 북한의 문학 연구 학술 담론장에서 그가 사라지는 중대한 계기가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 5) 김삼불, 『신오위장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논문, 1949(미간행). 판소리학회에서 이 논문의 편집본을 간행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역시 판소리학회 간행본임을 밝혀둔다.(김삼불, 『신오위장연구서설』, 『판소리연구』 10집, 1999, 359~478쪽.)

도 하였다.

김삼불은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고전’ 텍스트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고전’의 대표적인 정전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김삼불이 이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것은 주요 텍스트들의 이본을 검토하여 주요 선본을 선정하고 이를 교주하는 작업이었다. <해동가요>, <춘향전>, <토끼전>, <장끼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그 밖에 송강가사와 다른 가사 작품에 대한 그의 교주본이 1950년부터 1956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남아 있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장르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사의 구도에 대한 구상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실이 각종 판소리 관련 소설 텍스트의 해설이나 1957년에 발간된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에 남아 있다. 그의 주요 저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삼불, 「 병아리 」, , 1939.4.2.  
 김삼불, 「 」, , 1939.7.2.  
 김삼불, 「 촛불」, 제1권 제1호, 1939, 124쪽.  
 김삼불, 「 흰 집」, , 1940.4.28.  
 김삼불, 「 의 밤」, 1941년 6월호, 1941, 90쪽.  
 「 의 「 」 」, 삼천리 제12권 6호, 1940, 175쪽.  
 김삼불, 국문학 참고도감, 신학사, 1949.  
 김삼불, 열녀춘향수절가, 조선진서간행회, 1949.  
 김삼불, 신오위장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논문, 1949(미간행).  
 김삼불, 「내방문학과 내간」, 국제신문(서울판), 1949.2.  
 김수장, 김삼불 교주, 해동가요, 정음사, 1950.  
 김삼불, 배비장전/옹고집전, 국제문화관, 1950.  
 김삼불, 토끼전/장끼전, 평양국립출판사, 1955.  
 고정옥·김삼불, 가사집 1/2, 평양국립출판사, 1955.

- 김삼불, 『옛 조선의 자장가』, 조선여성, 1956.  
 김삼불, 송강가사연구, 평양국립출판사, 1956.  
 김하명·김삼불,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초판), 평양: 국립출판사, 1957.  
 김삼불, 『신재효와 광대가』, 문학신문, 1957.

‘조선 시가’의 전개 과정이나 판소리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김삼불의 연구 성과 가운데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설화에서 판소리로, 판소리에서 고소설 텍스트로 발달해 왔다는 진화론적 도식이나 가사 문학에 대한 평가와 인식 등에는 김삼불의 연구 성과가 남긴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러나 그간 김삼불의 문학 연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삼불에 대한 기존 논의는 그의 생애에 관해 서술하거나,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관련 논의에서 그를 간헐적으로 소환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sup>6)</sup>

하지만 최근 들어 윤광봉<sup>7)</sup>과 유춘동<sup>8)</sup> 등 연구자들이 김삼불의 생애와

6) 김삼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는 최철의 「           의 민요관」(『한국민요학』 2, 1994, 178~184쪽.)이 있다. 이 글은 1957년에 북한에서 간행된 김하명, 김삼불 공저의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이 책에 실린 김삼불의 민요관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이후 1999년에 판소리학회에서 강한영이 소장하고 있던 김삼불의 서울대학교 졸업논문 편집본을 학회지에 수록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기도 하였다.(김삼불(1999), 위의 논문, 359~478쪽.)

그 밖에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관련 논의에서 김삼불이 언급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들이 있다. 이윤석, 「문학 연구자들의 ‘춘향전’ 간행 - 1950년대까지-」, 『열상고전연구』 30, 2009; 강윤정, 「박동진 창본 옹고집타령 연구 - 김삼불본 옹고집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0, 2015; 권순경, 「문학, 문화 콘텐츠의 지역성과 세계화 - 제주를 중심으로 - : 배비장전의 변개(           )와 문화콘텐츠 양상」, 『반교어문연구』 40, 2015.

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문과대학에서 ‘연세 국학’ 및 ‘연세 문과대학’의 역사가 되짚는 과정에서 김삼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2,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2015.)

7) 윤광봉, 「잊혀진 사람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연희예술사』, 민속원, 2016.

그가 남긴 저작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생애와 함께 판소리 사설 및 고소설 연구에 그가 미친 영향들이 조금씩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김삼불의 주요 저작에 담긴 그의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과 문학사의 구도에 관한 아이디어, 판소리 사설과 연행에 대한 분석적 시각, 개별 가사 작품에 관한 비평과 ‘조선 시가’에 대한 인식 등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른바 ‘판소리계 소설’로 불리는 작품들이 ‘설화’에서 ‘판소리’를 거쳐 ‘판소리계 소설’로 안착했다는 도식은 최근까지 꽤 오랫동안 남한의 고전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통념처럼 인식되었으며, 문학 교육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도식이 유효한 내용으로 교수, 학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식을 근대적인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문학사 전개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기획한 이는 김삼불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계에서 판소리계 소설 형성과 이와 관련된 문학사 구성에서 김삼불이 남긴 흔적에 대한 고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조선문학 연구자로서 김삼불의 궤적을 훑는 한편 이를 통해 그가 어떤 기획으로 판소리를 조선문학사의 선조적 전개 도식 안에 안착시키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판소리 연구의 기초

1938년부터 1941년 졸업하기까지 김삼불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수학했다. 그는 연희전문에서 최현배, 정인보, 이양하, 손진태, 김선기, 민태식 등에게 조선어, 영문법, 현대문학, 역사민속학, 음성학, 한문 고전 강의

8) 유춘동, 「남북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2015. 유춘동은 이 글에서 잊혀진 ‘국문학자’로서 김삼불을 조명하고 그의 생애를 재구해냈다. 유춘동의 글은 판소리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김삼불의 저작과 생애 관련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등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당시 연희전문 조선어 및 조선문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에는 외솔 최현배와 위당 정인보가 있었는데 이후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이 두 사람의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정인보의 ‘조선학’은 이후 김삼불이 ‘조선문학’의 연구 관점과 방법,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sup>10)</sup> 김삼불은 정인보를 통해 ‘조선학’의 유풍을 접하고 한문으로 된 다양한 동양 고전 및 한국 고전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를 조선의 지식과 학문이라는 범주 속에서 문화적으로 탐색하고 인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조선학의 전통 속에서 조선의 지식과 학문 체계를 접하는 것은 당시 관학으로서 경성제국대학이 걷는 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sup>11)</sup>, 향후 김삼불이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

9) “외솔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또 영광스러웠고 연희 동산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주 들은 얼마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 항상 앞자리에 앉던 동주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눈에 떠오른다.”(유영, 『연희 전문 시절의 윤동주』, 『나라사랑』 23, 1976. 124~125쪽.) 당시 개설 과목과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22~23쪽 참조.)

정인보, 교수, 1922-1949, 조선문학/ 최현배, 교수, 1926-1961, 국어학/ 이운재, 강사, 1931, 조선어/ 정인섭, 교수, 1929-1946 영어/ 민태식, 교수, 1938-1942, 한문 및 조선문학/ 손진태, 강사, 1934-1941, 동양사/ 김선기, 교수, 1938-1942, 국어학

10) 정인보는 1923년 4월 부임하여 1949년까지 재직했는데, 주로 한문과 조선문학을 강의하였다. 한문에서는 『사기』와 『자치통감』, 『대학』과 『중용』 등을 가르쳤고 그 밖에 중국사와 중국철학을 강의하면서 양명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조선문학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글과 시조 작품 등을 강의했는데 이때 그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이익의 『성호사설』,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을 강의했다고 한다. 정인보는 당시 ‘조선의 얼’을 앞세워 조선학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31년 3월부터 『동아일보』에 ‘근세 조선학의 ’를 정리한 글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고전해제』에서 ‘조선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1931년 3월 30일 『동아일보』) 위당은 ‘조선학’을 처음 창시하고 주도적으로 형성해나간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신주백, 『근대적 지식체계의 제도화와 식민지 공공성』, 신주백 편,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 혜안, 46쪽.)

11) ‘조선학’은 조선을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고 조선 후기 문학적 전통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하는 자생적 씨앗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삼불은 연희전문 졸업 이후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1946년 경성대학이 서울대학교로 개편되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신제( ) 학생으로 편입했다.<sup>12)</sup> 당시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이병기, 조운

조선학은 1920년 전반기 다양한 조선사 책이 발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배경에는 1919년 3.1.운동 이후 최남선이 조선학 수립과 조선 역사 이해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장면이 존재한다. 1920년대에는 조선총독부 주도의 식민사학과 조선인 지식인들 중심의 민족사학이 서로 길항하면서 공존하게 된다.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사학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경성제대 법문학부가 “일본의 이해와 필요에 기여할 수 있는 분과학문 체제를 수립하고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배자로서의 확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구성되고 이 속에서 ‘조선사학’, ‘조선어학’, ‘조선문학’(각 7단위) 강좌가 개설되었다.(원출전: 『  
』

』 4101, 1926년 4월 23일.) ‘조선사학’의 제1, 2강좌는 이마니시 류( )와 오다 쇼고( ) 담당하였고 ‘조선문학’ 강좌는 다카하시 도루( )가, ‘조선어학’ 강좌는 오쿠라 신페이( )가 맡았다. 신주백은 “경성제대에서 조선사학 담당자는 조선총독부의 역사인식, 곧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으로 대표되는 식민사학과 매우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중략) ‘조선어학, 조선문학’의 경우, 오쿠라 신페이와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총독부의 구관제도조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중략) ‘조선어학, 조선문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던 다카하시는 조선문학이란 ‘현대 일본 및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에 ‘시문가요의 순수학은 물론이고, 고래 조선인의 사상 및 신앙을 표현한 유학 및 불교에 관한 모든 저술, 조선인의 이상적 생활과 신앙을 표현한 모노가타리( ), , 소설류 등을 총괄하는’ ‘일체의 문학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원출전: 『  
』

』 12, : , 1927. 1쪽.) 조선문학을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으로 구분한 안환의 주장, 그리고 민족과 언어를 기준으로 조선문학을 규정한 이광수의 주장과 전혀 다른 범주 설정인 것이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신주백, 『근대적 지식체계의 제도화와 식민지 공공성』, 신주백 편,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 도서출판 혜안, 2014, 38~43쪽.) “한편, 조선사에서는 정인보가 조선후기에 주제적 태도를 갖고 조선을 연구한 학문 경향을 ‘조선학’이라 명명하고 ‘근세 조선학의 ’를 셋으로 나누어 정리한 글을 1931년부터 『』에 발표하였다. (중략) 정인보는 이 과정에서 조선학의 계보를 정리하며 실학을 발견하고 호출함으로써 이후 ‘조선학운동’과 연계시킬 수 있었다.”(신주백(2014), 위의 논문, 46~47쪽.)

12) 당시 서울대학교는 학제를 개편하며 구제와 신제를 동시에 운영했다. 전문학교 4학년 졸업자가 3학년 편입지원자격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아 김삼불은 3학년으로 편입



제, 이희승, 방중현, 이승녕 등이 재직 중이었는데, 학과 합동연구실 차원의 조선왕조실록 연구나 1947년 ‘조선고전문학작품전람회’ 개최 등의 활동 기록을 통해 당시 국문학과에서 고전 문헌 연구가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이외에도 당시 문리과대학 부임 교수로 국사학의 손진태가 있었고, 출강 강사로 양주동, 이갑용, 정지용 등이 있었다.<sup>14)</sup>

서울대 재학 당시 김삼불에 관한 기록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이병기의 일기와, 함께 수학한 김민수의 회고록 등에서 발견된다.<sup>15)</sup> 김민수의 회고에 따르면 김삼불은 가람 이병기와 함께 고전 교주 작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고, 스승과 함께 이를 출판할 정도로 역량과 성과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병기의 일기(1948~1950년 사이)를 통해서도 확인되

---

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4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13)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위의 책, 707쪽.

14)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위의 책, 1100~1101쪽. 김삼불과 함께 수학한 김민수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출강 강사는 다음과 같다. “1947년 학과 교수는 국어학에 학과장 일석 이희승, 고전문학에 가람 이병기, 도남 조운제, 또 국어학에 심악 이승녕, 일사 방중현 두 교수는 1948년 8월에 폐지된 예과에 근무하고 계셨다. 동승동 옛 경성제국대학 중앙도서관 서측 2층 연구실에 다 계셨고, 문헌이 가득하고 널따란 공동의 합동연구실이 함께 배치되어 연구하며 선생님을 뵈기에는 거의 완벽한 시설이었다. 현대문학에는 소설에 무영 이갑용, 시론에 지용 정지용 선생이 출강하셔서 교수진으로서도 역시 구색을 갖춘 진용이었다.”(김민수, 『우리 스승 가람 선생』, 『어문연구』 29(4), 2001. 248쪽.)

15) “선생님은 당시 서울 종로구 계동 2번지 24호 조그만 한옥에 사셨고, 심부름으로 혹은 구제( ) 3학년 정병욱군이나 신제( ) 3학년 김삼불군과 종종 댁으로 찾아 뵈었다. (중략) 당시 학과 학생이라야 30명 내외였고, 그것도 늘 등교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중략) 연전 출신인 위 정군은 모교의 교수로 이미 작고하고, 역시 연전 출신인 김군은 숙명여대 교수였다가 월북하여 아직 생사를 알지 못한다.”(김민수(2001), 위의 논문, 247~248쪽.) “1946년 9월에 편입해간 김삼불군은 황소같이 많은 작업을 해냈는데, 바쁘신 선생님 곁에서 원고에서 조판, 교정까지 맡은 것이다. 하루는 출판사 인세를 전해 드렸고, 선생님은 그 봉투를 안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웃으면서 다시 꺼내 김군에게 돈을 반환해주셨다고 김군은 말했었다.”(김민수(2001), 위의 논문, 250쪽.)

는데, 김삼불은 이병기의 도움과 지도 속에서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이 사설 분석 등을 수행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기록을 살펴보면, 김삼불이 스승인 이병기는 물론, 강한영 등의 동료들과 함께 고창을 답사하여 신재효 생가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두가( ), 박타령, 춘향전 등의 자료를 필사하고 빌려온 것을 알 수 있다.

1948/4/2(금) 오전 3시 반에 일어났다. (중략) 5시가 넘어서야 김삼불( )군이 오고 20분 지나 강한영( )군이 왔다. (중략) 오후 5시 반 정읍역( )서 내렸다. 고창 신길동( ), 신기영( ) 형제가 자동차를 몰고 와 기다린다. 한 시간 남짓하여 고창읍( )에 이르렀다.<sup>16)</sup>

1948/4/3(토) (전략) 나와 길동군의 인도로 신오위장( )의 살던 집을 보았다. (후략)<sup>17)</sup>

1948/4/4(일) 전봉옥( ), 오의균( ), 신기준( ), 신기복( )군에게 신오위장( )의 사적을 들었다. 그 중 신기복군이 가장 열심으로 그 문적( )을 수집하는 이다. 허두가( ) 1책과 박타령, 춘향전 남창( ) 각 1책을 얻어 보았다. 나의 사본( )과 대조도 하고 없는 건 적기도 하고 허두가, 박타령은 빌려 왔다.<sup>18)</sup>

이후 이때 빌려온 책들의 원고 작업에 관한 언급도 일기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이 작업에 김삼불 역시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49년 김삼불은 신오위장연구로 서울대 졸업논문을 제출하는데, 위와 같은 작업들의

16) 정병옥, 최승범 편, 『가람일기2』, 신구문화사, 1976. 594쪽.

17) 정병옥, 최승범 편(1976), 위의 책, 594쪽.

18) 정병옥, 최승범 편(1976), 위의 책, 595쪽.

결과물이었다. 관련해서 1949년 6월 김삼불이 『판소리와 신오위장예술 (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는 기록, 졸업 이후인 1950년 2월 문리대 아악부시간에 신오위장전집 출판 소감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1949/6/4(토) 문리대( )로 갔었다. 김삼불( )군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국문과 학생과 다른 대학교 학생도 모였다. 『판소리와 신오위장예술 ( )』이다. 띄 흥미롭다. 다 한 후 간단히 평하였다.<sup>19)</sup>

1950/2/8(수) 비. 아악부( ) 시간을 했다. 삼불( )군이 와 소감을 말한다. 신오위장전집( )의 출판에 대하여.<sup>20)</sup>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동료들이나 교수진의 회고담과 일기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는 매우 우직하고 성실한 연구자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람 이병기의 눈에 띄어 그와 함께 시조 작품들을 읽고 판소리 관련 현장 답사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그는 교주 작업의 방법론과 기본 토대가 되는 몇 가지 관점들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닦으면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원전 독해 과정을 통해 조선 시가와 판소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나갔다. 특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문학 강좌로부터 이어지는 근대적인 ‘조선문학’ 교육의 역사 위에서 문학사의 구도에 대한 진화론적 인식과 ‘조선문학사’ 구성의 필요성 등을 자신의 연구자적 지평 위에 세워나갔다.

김삼불은 서울대 국문과 졸업 후 본격적인 저서 발간에 들어가 연구자

19) 정병욱, 최승범 편(1976), 위의 책, 610쪽.

20) 정병욱, 최승범 편(1976), 위의 책, 622쪽.

로서의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 김삼불이 먼저 주목한 것은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그리고 오늘날 판소리계 소설로 알려진 작품들이었다. 이 시기 그는 ‘조선문학’이 해방 후 식민주의의 자장을 벗어나 새롭게 범주화되는 과정에 참여해야 했고 이에 따라 그의 첫 연구 작업들은 ‘조선문학’의 대표적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이를 대중이나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그의 첫 성과물이 국문학참고도감(1949년)이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의 스승인 이병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국문학은       도 신문학이려니와 고전연구부터가 완전히 잘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도 채 되지 못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답답하고 궁거움을 마지 못하는 바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던 고전에 실려 있는 말들은 찾아알려도 아니하고 무단히 새말을 만들거나 자꾸 들오는 외국어를 짓거리거나 한다면 우리 국어 국문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략- 향가 시조는 더 말할 것 없거니와 홍보전 한양가라도 읽어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꼭 많다.”

여기서 고전문학 연구가 ‘민족/국가 문학(nation literature)’으로서 ‘국문학’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데, 이는 이병기에서 김삼불로 이어지는 ‘조선문학’ 인식의 내용이였다. 서문에서 이병기는 ‘우리 문학’으로서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김삼불 역시 이를 위해 국문학 텍스트에 등장하는 사물과 문화 현상들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도감’을 만든 것이다. 저자 서언(1948년)에서 그는 초중고급 학교에서 ‘국문학’을 학습하거나 교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로 발간한 것이라는 발간 취지를 밝히고, 국문학 작품 이해를 위해 작품에 나오는 ‘명사(       )’들을 그림으로 설명한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 실린 도안들은 모두

‘ , , , , , , , , ’ 등에 관한 것으로 국문학 작품 가운데 주로 시조나 판소리, 가면극 작품에 언급되는 사물과 문화 현상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1)</sup>

김삼불의 조선 시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서울대 진학 후 가람 이병기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쟁 직전 해동가요(1950년) 교주본을 발간했는데 이희승이 서문을 썼다. 서문에서 드러난 조선 시가에 관한 인식은 시가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장르를 ‘시조’로 인식한 것이다. 김삼불은 이 책에서 ‘청구영언’, ‘가곡원류’, ‘해동가요’의 문학사적 위상과 함께 각 이본의 특징과 선후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해제 대부분을 이본 사이의 차이와 각 이본의 특징, 이본 사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였다. 시조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천착하는 태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는 여기서 시조가 문자를 읽는 형태로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창( )을 통해 노래(음악)로 향유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조집에 실린 시조와 가보( )에 실린 시조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독서물로서의 시와 연행물로서의 노래를 구분하고 문학 연구에서 연행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 한 그의 태도는 판소리 사설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삼불은 이처럼 서울대 국문과 수학 이후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첫 작업으로 ‘교주본’ 구성과 간행을 시작하였다. 그는 ‘조선문학’의 정전( , canon)을 구성하고 이를 연구 대상을 만드는 작업을 ‘조선문학’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자료의 선별과 정확한 소개를 ‘조선문학’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삼고, 이를 좀더 정치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월북 이후 그의 문학 연구도 대

21) 이 책의 그림은 박노수( ), 이석우( ) 화백이 그렸다.

22) 이 책의 교주 내용은 한자어구나 고사성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우리말의 옛 표현이나 표기법, 어휘 등의 어원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부분 교주 작업으로 시작되었다.<sup>23)</sup> 월북 이후 그의 첫 교주 작업 성과는 토끼전/장끼전 (1955년)<sup>24)</sup>이었다.

이 책은 판소리 관련 소설을 고전으로 정전화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본 선정과 이본 비교 고찰의 관점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소설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인식이 돋보인다. 또한 설화, 판소리, 판소리 사설, 판소리 관련 소설로 이어지는 문학사적 구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며 장르 인식의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의 단초도 엿보인다. 북한이 ‘조선문학’의 전통과 정체성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선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인민성’을 드러내는 문학작품들을 선별하여 ‘조선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 1950년대 중후반 구체화되는데 이 성과는 이와 같은 연구사의 흐름 위에 있다. 특히 김삼불이 이 과정에서 주력한 것은 ‘조선문학’ 구성과 ‘조선문학사’ 기술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본을 선정하고 이를 교주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월북 직전 발간한 배비장전/옹고집전 (1950년) 교주 작업에 뒤이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월북 전에 이미 해당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3) 북한에서의 김삼불 저작은 1958년 이후 보이지 않는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1958년 종파 갈등을 둘러싼 북한 정치 권력 내부의 갈등 과정 중에 김삼불 역시 연루되어 공식적인 담론장 바깥으로 밀려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정확한 사정은 파악할 길이 없다. 다만 그와 함께 교주 작업이나 문학사 서술 작업을 수행했던 고정옥과 김하명은 1960년대 이후에도 저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하명의 경우 1970년대에도 그 작업의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하명은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1957년 간행)에서 김삼불이 저술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다시 1959년에 재출간하였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1958년에 김삼불이 연관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춘동은 김삼불이 1957년 이후 평양 이외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북한 학자들의 증언(심경호의 전언), 당시 그가 숙청당했다는 북한의 국문학자 김상훈 유족의 증언 등을 언급하면서 그의 신상에 관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유춘동(2015), 앞의 논문, 80쪽, 각주 42번 참조.)

24) 김삼불, 『토끼전/장끼전』, 평양국립출판사, 1955.

### 3. 김삼불의 판소리 연구와

#### ‘산문소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판소리에 대한 김삼불의 첫 연구 성과는 열녀춘향수절가 교주본과 서울대 졸업논문인 신오위장연구 인데, 모두 1949년에 간행되었다. 열녀춘향수절가(1949년)는 완판 84장본 춘향전 텍스트로, 김삼불이 직접 수집한 방각본 목판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한 것이다. 이 책은 원본 텍스트의 교주본이나 해제에서 춘향전 판본의 이본에 대해 쓰고 경판본(경성판본)과 완판본(완산판본)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sup>25)</sup> 그는 여기서 소설이 상품화되는 두 흐름으로 세책본과 방각본을 들고 방각본의 두 흐름으로 경성판본(경판본)과 완산판본(완판본)을 소개한 다음, 상대적으로 경판본에 문장체 소설의 성격이 더 많이 유입되었고 완판본에 광대의 타령, 다시 말해 판소리 창본의 영향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완판 84장본(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별춘향전’, ‘경판본 춘향전’ 등의 이본을 대조하여 글자체나 장수의 결락을 일일이 대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는 각 이본의 간행 시기를 정확하게 비정하지는 않고 다만 이본 고찰을 통해 ‘수절가(열녀춘향수절가)’의 간행 시기를 철종( , 1831~1863) 이후 고종( , 1852~1919) 3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김삼불은 이 해제본에서 방각본, 그 중에서도 ‘완판본 춘향전’의 이본을 분석하는 관점과 방법의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신오위장연구(1949년)에서 김삼불은 판소리를 ‘판의 소리’로 정의하였다. ‘판’이라는 말의 문화적 개념을 기술하고 ‘판소리’를 ‘무대 상연을 위해 조직적으로 짜인 마당소리’로 정의한 것이다. 그는 광대가 서는 자리가 곧 ‘무대’라고 쓰고, 신재효가 ‘판’과 ‘타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판’은 무대

25) 김삼불은 이 해제에서 경판본과 완판본을 각각 ‘                    ’과 ‘                    ’으로 지칭하였다.

적인 예능상의 결속이고 ‘타령’은 문학적 측면, 곧 사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였다.<sup>26)</sup> 그는 이 글에서 판소리 문학을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와 연극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연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하면서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와 판소리 사설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소설의 기원이 서사시에 있다는 것은 상식의 하나이나, 여섯마당에 해당하는 조선의 산문으로 된 소설과 타령과의 발생의 선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민소설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고 그 중에서도 형태를 잘 기쳤다는 소설 대개가 타령으로 불려진 것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27)</sup>

김삼불은 이 논문에서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의 각 작품을 하나씩 언급하며 서사단락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기서 ‘설화(문장체소설) → 타령 → 산문소설’의 가설을 판소리와 소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하나의 가설로 제기하면서 ‘춘향전’을 예로 들어 ‘춘향설화’가 판소리로 불리다가 다시 소설로 정착하는 과정을 추론하여 제시하였다. 춘향전의 이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대별하고, 완판이 경판보다 앞선 본이라고 추론하면서 동창본을 남창본의 일부분으로 추정하였다.<sup>28)</sup>

경판춘향전 → 고본춘향전 → 산문계  
완판춘향전 → 신오위장본 → 타령계<sup>29)</sup>

26) 김삼불, 『신오위장연구』,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363쪽.

27) 김삼불(1999), 위의 논문, 384쪽. 김삼불이 여기서 소설의 기원이 서사시에 있다고 말한 언급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8) 김삼불(1999), 위의 논문, 396~397쪽.

29) 김삼불(1999), 위의 논문, 398쪽.



그는 이처럼 ‘설화(문장체소설) → 타령 → 산문소설’이라는 문학사적 전개 도식을 구상하면서 소설의 이본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는 고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 전승이 만들어내는 어떤 적응성의 기반 위에 형성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고소설 이본의 계통적 발생과 형성 과정을 추론하여 상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연구 관점과 방식은, 고소설 이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며 이본이 되는 각 텍스트의 형성 과정과 텍스트 상호 간의 영향 관계를 계통별로 고찰하고자 하는 김동욱 등의 후대 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계승되었다.<sup>30)</sup> 한편 김삼불은 판소리를 고소설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는 경우에도 판소리의 연행성이나 현장성을 주요 조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판소리 사설을 음악적 측면이나 극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판소리와의 영향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한 이른바 ‘산문소설’, 특히 타령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문소설’들을 ‘연행’의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도식의 구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산문소설’이라 명명한 고소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각적 언어의 성격이 강하고 연행성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텍스트 부류와 시각적 언어의 성격이 강하고 문자성(literacy)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텍스트 부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고소설의 이본 계통 흐름을 상상하면서, 각 개별 이본 텍스트를 구술성(orality)와 문자성(literacy)의 스펙트럼 위에 놓고 그 위치에 따라 두 가

30) 이윤석, 『춘향전 연구자들의 상상력』, 『연민학지』 27, 2017, 139~182쪽 참조. 김동욱이 판소리의 문학적 연구, 특히 이른바 ‘판소리계 소설’의 이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주목한 연구자라면, 상대적으로 판소리의 연행적 측면, 음악적 성격이나 극적 특성 등에 더 주목한 후대 판소리 연구자는 강한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김삼불이 앞서 주장했던 내용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윤석의 위 논문은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의 도식이 지닌 한계와 허구성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문학사적 도식이 어떤 연구 계보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추론한다.

지 부류로 구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소설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지나치게 단선화하거나 시각장의 문자 텍스트 중심으로 이해하는 태도, 혹은 시각장과 청각장을 단순하게 뒤섞어 구술에서 문자로의 이행으로 도식화하는 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과정을 좀더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음악 연극 무용과의 연관성은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겠다. 판소리는 다른 예술 - 조각 음악처럼 그 소재에 있어 단순 또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판소리는 음악이 주가 되지마는 무용 연극의 요소가 부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판소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인용에서 본 바 송남잡지( ) 가오악부( ) 경수당전고( )에서 판소리를 곧 극이라고 하였던 것에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경자( ) 조선연극사 조선창극사 이하( ) 대구극( ) 또는 창극( )이라 하였으니, 판소리가 일종의 극으로 인식될만큼 극적 요소의 풍부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의 극적인 인식은 곧 타령이 희곡( ) 계열에 속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과연 타령이 희곡 계열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위장 작품의 문학 Genre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Point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중략)

중세문학의 음악과의 교섭에 있어 우리는 일정한 문학 Genre의 생성에 있어 문학은 음악에서 독자적으로 생성하느냐, 또는 음악이 선행하고 문학은 그 음악에 수반되어 부차적으로 생성하느냐가 또한 큰 문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그 선후관계에서 이른바 악주사종( ), 사주악종( )의 어느 형태나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원시예술에 있어서 타령과 악이 동시적인 것보다 오히려 악이 선행하고 불가분한 유기적인 일체였다 함은 한 개의 정설이거니와 문화 단계에 들어서서도 그 의존 관계에는 별반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중략)

판의 구성에 있어 악이 주된 것이라면 판소리 초기의 판의 구성 주체인 악은

분산적으로 통일 없이 민요조에서 지양( )된 중머리 단머리 등등이 개별적으로, 속간( )의 설화의 어느 토막을 따서 사( )로 하여 불리워지든 것이 한 체계로 집합 응고되어서 여계서 비로소 양적인 단편이 질적인 판으로 짜이자, 그 궤도 위에서 판은 타령과의 제약하에서 발전하였지 않았나 한다. 판과 타령은 반드시 일치 통일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 대립하는 방향도 가졌으니, 판은 대중(서민)적인 것이요 타령은 대중적인 면과, 그와는 대조되는 다른 면, 즉 양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sup>31)</sup>

“서민문학의 최고봉이며, 양반문학을 압도적인 세력으로 뒤흔치고 솟아난 것이 춘향전이다. 춘향이야말로 서민문학의 여상( )이요, 그런 뜻에서 서민정신의 집중적인 한 상징이다. 춘향에 관한 설화가 문학으로 전성( )하여 오는 과정에 있어, 춘향이에게 던진 각계각층의 해석이며 수용태도는 마침내 복잡한 채색의 옷을 춘향이에게 입히게 되었다. 설화에서 시작된 여사( )한 문학의 적층체(stratification)는 그 적층과정에서 자연 춘향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것은 역사의 전환에 대한 각 group의 변모의 반영이기도 하다.”<sup>32)</sup>

신오위장 연구 논문에서 김삼불은 ‘설화’에서 ‘판소리 사설’이 만들어지고 다시 ‘판소리 사설’이 ‘소설’ 텍스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자적 상상력을 풀어 놓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의 도식을 단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와 같은 도식적 관념이 완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판소리와 소설 텍스트가 교섭하는 조선 후기 상황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그의 연구자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판소리의 전성기를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이후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31) 김삼불(1999), 앞의 논문, 367~368쪽, 372~373쪽.

32) 김삼불(1999), 위의 논문, 396쪽.

종류의 소설 텍스트들이 19세기 이후 시정의 통속 문화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판소리 사설과의 교섭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설화로부터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상한 것은 그 역시 문학사 전개의 진화론적 도식, 다시 말해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의 이행이나 구술에서 문자 문화로의 이행이라는 도식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판소리를 연행 예술로 이해하면서, ‘조선문학’의 여러 텍스트를 문자 문화나 시각장 안에서만 사유하는 태도를 시종일관 경계하고 있으며 소설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단 하나의 선조적 도식으로 환원하려는 인식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가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그리고 이 사설과 연관이 높은 소설 텍스트들을 하나의 자장 안에서 살펴보려 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텍스트를 ‘서민 문화’ 혹은 ‘서민 문학’의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조선문학’이 새로운 문학, 문화예술 담당층의 도래를 맞이했다는 사실, 혹은 문학사를 견인하는 세계관적 전환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학사 자체를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구성하고 서술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 문화와 문학을 관통하는 핵심어로 ‘서민’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sup>33)</sup>

“가로지기타령은 역사적인 작품이다. 왜냐면 양반문학의 봉건적 세계감각에 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취재( )한 작품을 산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3) 월북 이후 문학사 서술에서 이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1950년대 말 북한에서 이루어진 사실주의 문학 발생 시기를 둘러싼 논의와 연동된 것이었다. 이 논의에서도 문학사의 근대적 전환 국면을 언제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북한사회과학원연구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 세계절, 1989 참조) 김삼불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고전문학사를 서술한 김하명은 이 논쟁에 참여한 주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것은 **서민문학**에서 최재될, 또한 되어야 할 이조( ) 말기라는 봉건 몰락기의 특성이 곧 이 작품의 생산의 가능성을 부여한 한 개의 큰 전제다.”<sup>34)</sup>

“박타령은 박홍보가( )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인데, 오위장의 여섯 마당 중, 횡부가( )와 함께 가장 **서민적인 성격,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sup>35)</sup>

“우리의 첫째의 관심은 오위장 작품 속에 깃드는 새로운 도덕과 모든 봉건적 세계관의 기준과 원칙을 떨친 **서민의 세계관**을 그 속에서 시인하고 긍정하는데 있겠다. 그 작품에 나타난 부분적인 구세계관( )의 지반( )인 말기 사회에서, 퇴색( )은 하였으나 의연히 양반층이 모든 계급층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인되는 것이다. 그의 단가( )에 있어서 사설( )방아타령이며, 괴심한 되놈 등의 세계관이 오위장의 전작품에 농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만약 우리가 동창춘향가에서 보는 **춘향이의 자유결혼론 같은 새로운 윤리관**, 즉 서민층의 새로운 세계관이 그의 전작품을 통하여, 진( ) 퇴미 속에 사금( )같이 단 한 톨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가 첫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sup>36)</sup>

김삼불은 월북 직전 발간한 배비장전/옹고집전 (1950년)<sup>37)</sup>에서 ‘배비장전’과 ‘옹고집전’을 ‘열두판소리’에 드는 작품들로 소개하고, 판소리 사설을 특이한 소설 장르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였다. 그는 판소리와 연결된 이들 작품을 ‘이조 말엽 서민정신의 반영물’로 분석하고 이를 ‘서민문학’의 한 종류로 파악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 문학사의 큰 변화를 ‘서민문학’의 대두로 보고 그 대표적 장르로 ‘판소리’를 언급하였다. 또한 설화가 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서민문학의 선행하는 모든 형태가 갈무

34) 김삼불(1999), 위의 논문, 449쪽.

35) 김삼불(1999), 위의 논문, 455쪽.

36) 김삼불(1999), 위의 논문, 470~471쪽.

37) 김삼불, 『배비장전/옹고집전』, 국제문화관, 1950.

리된 대표 장르이자 근대 문학을 싹틔운 장르로 판소리를 소개하였다. 판소리가 상층 계급의 향락으로 제공된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판소리의 본령이 아니며 판소리에 담긴 서민문학 정신은 양반에 대한 풍자와 폭로, 비판의 정신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판소리에 나타난 양반 문화 취향의 흔적들에 대해, 이것이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양반 계급이 몰락하고 붕괴하는 조짐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두 작품에 대해 ‘양반의 무력함과 거세됨을 그리고 자아분열 자아붕괴를 여실히 증명하는 웃지 못할       ’이라고 표현하였다.<sup>38)</sup>

그러나 이 글에서 김삼불이 제기하는 ‘판’과 ‘타령’과 ‘극’의 개념, ‘타령’과 ‘판소리’의 관계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가 졸업논문에서 제기한 소설의 기원으로서의 ‘서사시’에 대한 인식이 이 교주본 해제<sup>39)</sup>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문소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그의 연구자적 상상에 어떻게 모순 없이 녹아들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소설이 ‘서사시’에서 출발했다고 바라보는 관점<sup>40)</sup>과, ‘산문소설’이 ‘설화’와 ‘타령’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주장 사이에는 별도의 논증과 설명이 필요한 어떤 ‘어긋남’, 혹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판소리를 역사적 장르로 의미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에 영향을 받은 고소설 작품들이 새로

38) 김삼불(1999), 위의 논문, 2쪽.

39) 김삼불(1999), 위의 논문, 1~5쪽.

40) 소설이 서사시에서 출발했다는 인식은 김태준, 이명선 등 경성제대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의 문학사 기술에서도 나타나며 1950년대 중반 북한 문학사 기술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루카치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에서 언급된 소설의 기원으로서의 서사시는 역사적 양식이며 세계관적 지향에 연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07 참조)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소설의 기원이 서사시에 있다는 주장을, 설화가 더 긴 이야기로 발전하고 이야기가 노래로 불리다가 독서물로 정착하는 도식의 한 근거로 인용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운 시대의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서민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산문 소설’이 서민 문화, 혹은 서민 문학의 대표적 장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이들이 유행한 시대가 곧 새로운 문학 생성 및 향유 주체의 등장을 알리는 변화의 시기였음을 논증하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문학사 인식은 ‘인민성’을 내세워 ‘인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을 정체화하려 했던 1950년대 중후반 북한 문학사 연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sup>41)</sup>

#### 4. 월북 이후 김삼불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 ‘서민소설’ 형성 과정에 대한 구상

김삼불은 판소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설 텍스트들의 형성 과정과 이들 텍스트의 역사적 전승 과정에 대한 구상을 통해 문학사, 그 중에서도 소설사의 전체 구도를 기획하였다. ‘음악’과 ‘연행’, ‘서민문학’ 등의 렌즈로 조선 후기 문학사를 조망하고 진화론적 도식의 구도로 소설사를 재편하면서 판소리 사설이 ‘서민소설’ 형성과 발달, 쇠퇴에 미친 영향을 논증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배비장전> 교주본 해제에서 ‘배비장전’에 대해, ‘타령이 소설로 전환, 변형하는 과정의, 서민문학 말기의 작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진화론적 도식의 구조 내에서 소설의 형성 과정이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어떤 단초적 구상

41) 그러나 ‘조선문학’의 개념과 지향,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195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문학 연구의 담론장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삼불은 담론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에서 그가 저술한 ‘가사’의 인민성에 대한 분석, 송강가사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의 고전문학』(1957)에 나타난 문학사 인식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한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다. 그의 월북 이후 글들에 나타난 ‘조선문학’ 인식과 ‘인민성’의 지향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분석을 요한다.

을 제시했는데 이 글에서 매우 흥미로운 균열 지점을 드러냈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sup>42)</sup> 그가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는 소설 형성 과정의 도식을 구상하고 이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는 이 도식을 다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태의 도식으로 나눠 설명하였다.<sup>43)</sup>

설화 → 서민소설 → 타령 → 서민소설  
 문장체소설 → 서민소설  
 문장체소설 → 타령 → 서민소설  
 설화 → 문장체소설 → 타령 → 서민소설  
 설화 → 문장체소설 → 서민소설 → 타령 → 서민소설

김삼불은 판소리 사설에서 소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개 흐름을 구상하면서도 판소리가 가진 음악적 성격이나 연행의 측면들을 삭제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민소설’의 문식적 측면과 구술적 측면, 소설 텍스트 향유의 청각장(연행의 장)과 시각장(독서의 장)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런 노력의 결과 그는 ‘타령’에서 ‘서민소설’로 이어지는 일방적 구도가 아니라 ‘문장체소설’에서 ‘타령’으로 이어지는 흐름, ‘문장체소설’이나 ‘서민소설’이 ‘타령’으로 흘러드는 과정, 그리고 ‘문장체소설’이나 ‘서민소설’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던 ‘타령’의 사설이 다시 ‘서민소설’로 흘러가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또 이와 같은 소설 텍스트의 출발점이 ‘설화’가 아닌 형성 과정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글에서 ‘문장체소설’에서 ‘서민소설’로, ‘문장체소설’에서 ‘타령’을 거쳐 ‘서민소설’로 이어지는 소설 텍스트 형성 과정에 대한 구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42)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된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도식에 김삼불의 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구체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

43) 김삼불(1950), 위의 책, 4~5쪽.



김삼불은 이처럼 그가 ‘서민소설’이라고 지칭한 조선 후기 고소설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단선적 흐름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의 문학사 인식과 구도 속에는 진화론적 관념이 분명 전제되어 있었지만 이것에 고착되어 하나의 단선적 흐름만을 구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월북 이후 북한에서 ‘문학사’ 기술 작업에 참여하고 ‘조선문학’의 정체성 구성에 개입하면서 그는 좀더 확고하고 명확한 ‘조선문학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문학사의 주요 작품들에 내재한 ‘인민성’, 혹은 ‘서민문학’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북 직후, 다시 말해 195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조선문학사’ 구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전 무렵의 김삼불은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연행이나 기타 문화의 맥락과 유리된 형태로 인식하지 않았고, ‘설화→타령→서민소설’의 삼단 도식으로 모든 소설 텍스트 형성 과정을 환원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른바 ‘서민문학’의 전성기를 17세기나 18세기로 올려 잡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오히려 훨씬 후대인 1894년 이후 시기로 상정하였다. 이것은 그가 판소리의 전성기를 영정조 대로 상정하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sup>44)</sup>

“시조가 우리 문학에 있어 유독( )한 장르이라면 이 판소리의 사설도 학적 흥미를 자아내는 특수한 소설장르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나 이 판소리는 이 조말엽 서민문학의 조류에서 새로 생긴 장르이고 보면 저절로 그 사설은 서민 정신의 반영물인 것이다. 서민문학은 전기( )의 산림문학 양반문학에 비취 많은 변모를 하였으니 (중략) 그 중에서 이 판소리는 설화를 문학으

44)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1950년대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판소리 연구의 성과가 지시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전개된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 시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다른 고전문학자들이 보인 태도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론을 요한다.

로 고정하는 흡근( )의 역할을 하였고 일부 서민소설의 선행 형태로 서 또는 근대 문학의 선편으로 모든 서민문학 장르를 흡수동화하여 하나로 결정( )한 정희 서민문학을 대표할 장르라 하겠다. -중략 그러나 배비장의 성격은 이중이니, 그 신분은 중서층( )에 속하여 대( ) 방자( ) 관계에서 상전으로 나오는 면은 양반층을 대변함이요, 방자와 회광동진( )하는 장면은 중서층의 휴머니즘을 통한 하부층( )과의 결합을 뜻하는, 정비장 배비장의 이러한 후자의 성격은 서민문학의 새로운 인간타이프로 변강쇠 이춘풍과 함께 돈타령의 박홍보 옹고집 밤타령의 박홍보와 같이 서민의 군상들이다. -중략 기본 도식은 역시 ‘설화→타령→서민소설’이다. (중략) 이 삼단 도식이 성립된다면, 문학사에 있어 결코 가법치 않는 문제를 제기하나니, 즉 서민문학의 발생과 전성과 몰락의 연대적( )인 구분 문제다. 서민소설이 타령 후에 이르난 문학장르이라면, 타령의 전성이 순조 후 고종 초이니, 타령에서 기인된 소설이 설혹 최대의 성장의 적층을 하였다고 손치더라도, 타령의 그것보다 앞서지 못하니, 종래의-서민문학은 영조 정조때 벌써 한물이 갔다는, 의심 없이 간과된 단정이 한 개의 현상( )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이 삼단도식은 서민문학의 최고의 고비를 갑오년 어둠에 두어 상향선을 긋게 되니, 서민문학의 전성이 정조 때보다 훨씬 시기적으로 후임이 상상( )된다. -중략 판소리는 그 주된 것이 창조( )였고, 반림은 종속적인 것이니 아직 창악이지 창극은 아니며, 그 사( )는 서사시계열에 속할지위 회곡( )계열에서는 멀다. 배비장전이 설화→타령→서민소설의 경로를 밟아 창악이 창극으로 질적 전성( )을 한 즉 의식적인 회곡화( )를 한 이외에는 그냥 산문소설로서 적층 지양( )되었으니, 이는 곧 그 형식적 내용적 본질이 서사시계열임을 표지함이 아닐가.”<sup>45)</sup>

그러나 김삼불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조선문학사’의 전개 양상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설화→타령→서민소설’의 구도를 기본틀로

45) 김삼불(1950), 앞의 책, 1~7쪽.

놓고 판소리와 판소리 관련 소설, 여타 산문과 구전 서사물 사이의 상관 관계를 도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1955년 북한에서 간행한 <토끼전>과 <장끼전> 주해본의 해제<sup>46)</sup>에서 그는 우화( ) 형태의 이야기가 소설로 전화( )해 가는 과정에 판소리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구비( )와 서사( )가 어느 것 하나의 우위로 말할 수 없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판소리와 소설의 역사가 엮혔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소설을 윤색하여 판소리 창본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전제로 두고 이와 같은 주장을 뒤집어 ‘판소리에서 소설로의 이행’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는 두 작품의 해제에서, 앞서 ‘열녀춘향수절가’ 교주본 해제와 마찬가지로 방각본과 필사본을 아우르는 이본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판소리 이본의 역사와 소설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끼전’의 경우 삼국사기 소재 ‘ ’에서부터 우화적 이야기의 연원이 어떻게 판소리 창본을 거쳐 소설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밝히면서 주제 비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sup>47)</sup> 앞서 ‘설화’, ‘타령’, ‘문장체소설’, ‘산문소설’ 사이의 복합적 전개 양상에 대한 구상을 폐기하고 ‘설화→타령(판소리)→(서민)소설’로 이어지는 도식을 좀더 확고히 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이른바 남한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명명한 소설 텍스트 형성 과정의 3단 도식이 확고해졌다. 그리고 이 도식은 문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화론적 도식의 기본 구도와 원칙을 구현한 것이었으며, 이 도식을 통해 조선 후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학사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는 기본 서술 형식이 구축되었다.

판소리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그의 역사적 인식과 구도는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초판) 48)에서 가장 정제된 형태로 드러난다. 이 초판본 서

46) 김삼불, 『토끼전/장끼전』, 국립출판사, 1955, 7~18, 153~155쪽.

47) 김삼불(1955), 위의 책, 11~17쪽.

문에는 김삼불이 ‘극’ 부분 서술을 도맡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판소리에 앞서 가면극과 인형극을 소개했는데, 극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첫 대목에서 ‘조선 연극’의 기원으로 ‘설화’를 언급하였다.<sup>49)</sup> 이 글에서 그는 산대극, 오광대극, 봉산탈놀이 등을 간단히 소개하기도 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으로 서술한 것은 역시 판소리였다.

“판소리는 자기 발전 과정에서 선행한 모든 민족적 놀음과 가면극 인형극 화극들이 도달한 예술사상적 정수를 계승하는 데서 출발하여 가면과 인형을 사용하지 않는 연극으로서 고대 중세 조선 연극의 수준을 높은 위치에 이끌어 올렸다. 판소리는 가면극 인형극과는 달리 집약적인 극적 갈등의 설정과 통일적인 슈제트의 발전 속에 등장 인물의 성격의 전형화가 개별성 속에서 형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리(말)와 창외의 적절한 배합으로써 대사의 전달을 명확히 수행한 이 모든 점에서 16세기 화극의 역할을 점유하였다.”<sup>50)</sup>

그는 여기서 가무와 사설의 유기적 결합을 이야기하되, 이 결합을 대본에 가무가 따라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유기적 통일성이 높을수록 판소리의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서술하였다.

“조선 인민이 봉건 농노제로부터 자기 해방을 지향하여 량반 귀족들의 억압을 반대하고 일떠선 인민 대중의 격앙의 시기를 17세기 후반으로 본다. -중략- 18-19세기는 서민층의 사회적 대두로 인한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대두한 시기

48) 김하명·김삼불,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초판)』, 평양: 국립출판사, 1957. 이 책은 김삼불이 학술 담론장에서 사라진 후 김하명이 단독으로 재판본(1959년)을 저술했는데 이 재판본에는 김삼불이 서술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학술 담론장에서 김삼불과 김하명의 입지가 달랐으며, 김삼불이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 배제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49) 그는 이 글에서 처용무 관련 기록을 언급하고, 고려 말과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 속에서 연희(戲) 관련 기록을 찾아 기술하기도 하였다.

50) 김삼불(1957), 앞의 책, 220~221쪽.

일 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가 발흥한 시기다. 특히 문학과 미술면에서 그러하였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서민층의 진출로 인한 민족 음악이 공전의 룡성을 초래한 시기다.”<sup>51)</sup>

그는 여기서 판소리사를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 1기는 3명창 시대로 18세기 말까지, 2기는 8명창 시대로 19세기 중엽 신재효의 출현까지, 3기는 이후 협률사 출현까지의 시기다. 이후 신재효의 업적을 평가하고 판소리 12마당을 소개한 후, 판소리로부터 형성된 <춘향전>, <홍부전>, <토끼전>의 작품 내용과 문학적 성취를 기술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 서술을 마치고 있다.

“중세 연극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연극 형태인 판소리는 타령( ) 덕담( )이라고도 하며 대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광대 한 사람이 담당하여 연출하는 독연( ) 형태의 극이다. 이러한 민족적이며 독창적인 양식을 가진 판소리가 주로 음악 무용 동작 대본 등의 종합성으로부터 구성되었으나 그의 주성분의 하나인 음악이 극음악적인 것과 같이 대본은 비록 서사적 표현 방식에 의거한 점이 많으나 총체적으로는 극적 표현 방식에 복종한 극문학이다. 판소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극적 표현이 더욱 명확해지며 극적인 것으로 더욱 접근하여 창극으로 발전한 사실은 판소리 자체 내에 내포된 창극의 씨를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략)

대본은 광대들에 의하여 민간 설화에 근거하였으며, 창을 통하여 점차 형성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판소리의 께마가 국한되어 유사한 께마는 동일한 한 개의 작품으로 집중되며 시간의 경과를 따라 축중하며 변종을 산생케 된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께마의 다섯 마당이 더 커서는 열두 마당이 수백 년을 두고 산 현실에 부단히 작용 적용하면서 발전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본은 인민들이 몇 세대를 거쳐 확정하고 검토한 질문들에 대하여 회답을 주면서 수많은 변종을 분화했다. (중략)

51) 김삼불(1957), 앞의 책, 224쪽.

판소리는 그 형성에 있어 무격가( )적 서사성과 민요적 서정성을 극적 표현으로 종합하면서 17세기 말에 성행한 창악지희( )에 선행 형태를 둔 것으로 믿어진다. 력사적 시기에 있어 사회적 의식 형태로서의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판소리는 필연코 그 형성에는 몇 가지의 객관적 조건의 선행을 요구하였다. 즉 판소리의 계급적 성격을 특징지은 사회적 조건-봉건 사회의 빈사적인 모순의 격화와 이를 항거하는 인민들의 객관적인 력량이 필요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의지와 념원을 담은 설화의 일정한 수준까지의 발전 즉 설화의 줄거리가 세련되고 희곡성으로 충만된 발전이 필요하였으며, 광대의 연극적 경험의 축적과 판소리의 음악적 제 특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 음악의 일정한 폭넓은 발달이 필요하였고 전문가적 예술에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직업적인 배우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중략)

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경과하면서 인민들의 구비 설화에 그 원천을 두고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며 생활에서 제기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극적 형식을 통하여 확정적인 회답을 주며 동시에 인민들의 원수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써 특징지어지고 있다. (중략) 판소리는 다만 사회적 악에 대하여 그자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왜 어떻게 나쁘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인민의 행복을 반대하는 모순된 사회 자체가 멸망하고야 만다는 인민들의 해방적 지향과 신념을 긍정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데 복무하였다. (중략) 행복한 결말은 바로 인민들의 불패의 념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꺾을 수 없는 념원은 인민들의 고귀한 사상의 정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취와 억압을 항거하는 인민들의 자기 투쟁에서 판소리는 항상 고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52)</sup>

위와 같은 서술에서 김삼불은 설화에서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할 뿐 아니라 시가사의 전통과 음악, 무용, 극, 무가와 굿

52) 김하명·김삼불,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초판)』, 평양: 국립출판사, 1957, 220~245쪽.

등의 전통 예술이 판소리로 갈무리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판소리를 이 모든 예술 장르가 갈무리된 서민 예술로 평가하려 한 것이다. 그는 판소리 사설에 주목하면서 판소리의 연행적 측면에 관한 미적 평가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으며 판소리의 내용과 미적 자질이 인민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문학’을 ‘인민문학’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르로 판소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판소리를 연행 예술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조선문학’의 범주 내에서 다루기 위해 문학적 자질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으며, 무엇보다 문학사 구성 및 서술의 관점에서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을 위치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월북 후 1950년대 중후반 김삼불의 ‘조선문학사’ 서술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체계화하기 위해 ‘설화→타령→서민소설’의 삼단 도식을 확고히 하고, 판소리의 전개 과정 또한 그 시기를 상향 조정하여 세 시기로 구분하는 등 ‘조선문학사’의 정체성 기술과 ‘문학사 구성 및 기획’이라는 학술 정치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학사의 연대기적 기술과 시기 구분, 그리고 각 개별 장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증법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구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모든 문학의 기원으로서 ‘구비설화’가 갖는 의미와 비중이 극대화되었다. ‘조선문학’의 연원을 ‘구비설화’에 두고 판소리의 서민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서민문학의 전성기를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은 모두 ‘조선문학’의 ‘인민문학’적 정체성을 부각하고 조명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획 속에서 김삼불의 서술은 이전 시기 문학 연구에서 보여준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확고하며 단선적인 시각 쪽으로 기울어갔으며, 유기성과 역사성, 인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갔다.<sup>53)</sup>

## 5. 나오며

김삼불은 식민지 시기 연희전문에서 고전 원전 텍스트 독해를 위한 기초를 익히고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근대학문의 관점과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학을 익히는 ‘조선학’의 전통을 접할 수 있었다. 해방 후 그는 서울대학교에 편입하여 근대문학의 관점에서 체계화된 ‘조선문학’의 개념과 문학사적 인식 등을 접하고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전망을 착실히 다져나갔다. 서울대학교 졸업과 함께 ‘조선문학’ 연구의 성과들을 하나둘 발표하기 시작하던 그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북한으로 이동하여 1950년대 중후반까지 고전문학 텍스트에 대한 교주 작업과 가사 및 판소리, 문학사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연희전문을 거쳐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과정을 통해 문헌고증학적 방법론과 실증적 연구의 연구자적 자질 등을 훈련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전 텍스트 연구에서의 이본 고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각 고전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역사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돋보인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고전 텍스트를 독서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자 텍스트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들 텍스트가 향유되는 문화적 맥락과 연행의 조건 등을 아울러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연희전문 시절 남창 손진태의 민속학과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등을 접하고 이를 통해 훈

53) 특히 이 중에서도 ‘인민성’의 문제는 그가 문학사 서술 내내 강조한 것이었으며, 작품 해석과 주제 비평의 주요 열쇠말 역시 ‘인민’이었다. ‘인민적 지향’과 ‘인민 해방’, ‘인민의 행복’ 등이 이른바 ‘서민문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로 지적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문학’의 ‘인민성’ 강조는 1950년대 후반에 강화되어 1960년대 초반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설화’와 ‘판소리’ 등을 다루는 이른바 ‘구전문학’ 분야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기도 하였다.(김영희, 『북한 ‘구전문학’ 연구에 나타난 ‘인민’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 『한국고전연구』 35, 2016, 303~373쪽 참조.)



련받은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가 아닌 로서의 시조, 활자화된 텍스트가 아닌 연행 장르로서의 판소리를 고찰하려는 태도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연구자적 태도는 서울대 국문과에 편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서울대학교로 이동한 후 그는 근대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선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 그는 ‘조선문학’의 ‘고전’을 구성하고 이를 대표하는 정전(canon)을 선별하여 ‘조선문학’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고 근대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그는 판소리 사설, 고소설, 시조집, 가사집 등을 교주하고 문학사의 관점에서 이들 대상을 ‘조선문학사’의 일관된 흐름 속에 위치 짓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그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연행 예술인 ‘판소리’를 거쳐 소설의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의 도식을 주장하고 이를 문학사의 구도에 안착시킨다.

월북 후 그는 시조 및 판소리 텍스트의 교주 및 분석 작업에 이어 가사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해석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문학사’ 서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연구자로서 그의 행적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작업은 ‘고전문학사’ 서술이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인민문학’에 두고 판소리 등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화론적 도식 위에 ‘조선문학사’를 재구성하면서 판소리로부터 조선 후기 대중적인 한글 소설로 이어지는 소설사의 흐름을 확정적으로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문학 연구사에 남은 그의 이와 같은 흔적들은 이후 지워지거나 주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김동욱은 1950년대 중반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에 관한 여러 편의

글<sup>54)</sup>을 통해 ‘설화 → 판소리 → 판소리계 소설’의 도식을 주장하면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에 이와 같은 도식의 아이디어가 처음 나오고 김삼불이 이를 다시 언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인 도식의 구성과 이를 위한 논증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sup>55)</sup> 김동욱은 김삼불이 ‘설화’로부터 ‘판소리 사실’을 거쳐 이에 영향 받은 소설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추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노식의 주장만을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그러나 정노식은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 본격적인 주장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극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단편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다.<sup>56)</sup>

54) 이윤석은 김동욱이 1950년대 「판소리 발생고」 1(『논문집』 2집, 서울대학교, 1955)에서 이 도식을 먼저 주장한 것으로 논증하였다.(이윤석(2017), 앞의 논문) 해당 글에서 김동욱은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는 도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판소리를 서사시의 전통 위에서 역사적으로 정립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드러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김동욱의 고유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경성계대 조선어문학부 출신 ‘조선문학’ 연구자들이 가진 공통된 입장 가운데 하나였다. 김삼불의 서울대 졸업논문에서도 신재효를 셰익스피어에 비견하면서 판소리를 서사시의 전통, 혹은 서사를 노래로 연행하는 예술적 전통 위에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김태준과 조운제, 이명선 등 경성계대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이 ‘조선문학사’를 ‘보편의 문학사’로 정체화하고 재기술하는 과정에서 ‘서사시’로부터 ‘소설’이 나오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55) 김동욱, 『중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 출판부, 1976 참조;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참조.

“판소리가 국문학 면에서는 문학으로서의 성찰이 해방 후에 비롯되기 시작하여 각광을 받았다. 이의 선편은 가람 이병기선생의 서울대학에서의 강의에서 비롯한다. 여기에서 김삼불, 김동욱, 강한영 등의 판소리의 문학적 민족적 연구자들이 나왔다. 가람의 『조선의 극가』는 판소리를 극가로 다루면서 「신오위장전집」을 소개하면서 판소리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나 판소리와 소설과의 문제에 대하여는 깊이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이어 김삼불의 「가루지기 타령」, 「배비장타령」의 텍스트의 발간에 이어 「춘향전해제」, 「신오위장연구( )」 등은 조잡한 대로 근원설화→판소리→소설로의 적응연계를 해명한 것으로 판소리 연구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제 문제』, 『인문과학』 2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68, 3쪽.)

56)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참조.

물론 김삼불은 월북 이전 기술에서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의 삼단 도식을 확고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보다는 좀더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구상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이런 삼단 도식의 밑바탕이 되는 진화론적 도식의 관념과 이에 바탕을 둔 문학사 인식은 김삼불 외에도 김태준, 이명선, 조운제 등을 통해 발견된다. 다만 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또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소설 텍스트들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소설 텍스트 형성 과정을 학술적으로 논증하여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남긴 것은 김삼불이었다. 오늘날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여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 형성의 삼단 도식은 이처럼 식민지 시기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 강좌에서부터 이어진 문학사 인식과 진화론적 도식을 통해, 그리고 월북한 김삼불 등의 연구자가 마련한 틀에 의해 이미 구축된 것이었다.<sup>57)</sup>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한 한국에서 ‘문학’ 혹은 ‘문학사’ 연구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왔다. 이와 같은 굴절의 대부분은 앞선 연구 성과의 흔적을 지우고 스스로를 ‘비조( )’로 선언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강좌의 역사와 흔적을 지우거나, 월북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축소하거나 소거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태도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과 분단의 역사 고착은 이처럼 학술장의 다양한 계보와 흔적을 지우거나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국 문학의 연구 역사 안에는 월북 학자들의 업적을 지우거나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

57) 이 삼단 도식이 여전히 유효한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필자는 이 삼단 도식이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신화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이윤석은 판소리계 소설 형성 과정을 둘러싼 도식적 관념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논증한 바 있다. 이윤석, 앞의 논문 참조.) 김삼불이 초기 저작에서 이와 다른 결의 주장을 제기한 부분에 특히 주목하였다.

서도 이를 인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단 이후 고착된 문제들이 존재한다. 김삼불의 연구가 그 뚜렷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조선/한국’ 문학 역사 기술 및 연구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민과 분단으로 굴절된 한국 문학 연구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김삼불의 연구를 좀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sup>58)</sup>

---

58) 본 연구에서 다 밝히진 못했지만 앞으로 김삼불 ‘조선문학’ 연구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려면 김삼불이 선후배 동료들과 맺은 관계 및 문학 연구 맥락에서의 교유 내용, 그리고 연희전문과 서울대 국문과 선생과 제자로서 정인보, 이병기 등과 맺었던 관계 및 문학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인보, 이병기, 이명선, 고정욱, 조윤제, 정병욱, 강한영, 김동욱 등의 논의가 김삼불의 논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정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삼불, 「 병아리 」, , 1939.04.02.  
 김삼불, 「 」, , 1939.07.02.  
 김삼불, 「 촛불」, 제1권 제1호, 1939, 124쪽.  
 김삼불, 「 힌 집」, , 1940.04.28.  
 김삼불, 「 의 밤」, 1941년 6월호, 1941, 90쪽.
- 고정옥·김삼불, 가사집 1, 평양국립출판사, 1955, 1~519쪽.  
 고정옥·김삼불, 가사집 2, 평양국립출판사, 1955, 1~1067쪽.  
 김삼불, 「신오위장연구서설」, 판소리연구 10집, 판소리학회, 1999, 359-478쪽.  
 김삼불, 「신재효와 광대가」, 문학신문, 1957.  
 김삼불, 국문학 참고도감, 신학사, 1949, 1~45쪽.  
 김삼불, 배비장전/옹고집전, 국제문화관, 1950, 1~111쪽..  
 김삼불, 송강가사연구, 평양국립출판사, 1956, 1~286쪽.  
 김삼불, 열녀춘향수절가, 조선진서간행회, 1949, 1~6쪽.  
 김삼불, 토끼전/장끼전, 평양국립출판사, 1955, 1~202쪽.  
 김수장, 김삼불 교주, 해동가요, 정음사, 1950, 1~123쪽..  
 김하명·김삼불,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초판), 평양: 국립출판사, 1957, 1~245쪽.
- 「 」, 4101, 1926.04.23.  
 「 」, 동아일보 1938.04.03.  
 「 의 「 」 」, 삼천리 제12권 6호, 1940.  
 「 」, 1941년 6월호, 1941.  
 「 도 - 」, , 1943.04.10.

### 2. 논저

- 강운정, 「박동진 창본 옹고집타령 연구 - 김삼불본 옹고집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0, 2015, 197~222쪽.  
 김동욱,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 출판부, 1976, 1~494쪽.

- 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제 문제』, 인문과학 2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68, 1~28쪽.
- 김민수, 『우리 스승 가람 선생』, 어문연구 29(4), 2001, 247~257쪽.
-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비, 1993, 1~372쪽.
-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4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1~1236쪽.
- 신주백, 『근대적 지식체계의 제도화와 식민지 공공성』, 신주백 편,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 도서출판 혜안, 2014, 1~49쪽.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769쪽.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2』,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2015, 1~640쪽.
- 유영, 『연회 전문 시절의 윤동주』, 나라사랑 23, 1976, 122~127쪽.
- 유춘동, 『남북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69~87쪽.
- 윤광봉, 『잊혀진 사람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연희예술사, 민속원, 2016, 919~926쪽.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9, 1~71쪽.
- 이윤석, 『문학 연구자들의 ‘춘향전’ 간행 - 1950년대까지-』, 열상고전연구 30, 2009, 133~161쪽.
- 이윤석, 『문학 연구자들의 ‘춘향전’ 간행 - 1950년대까지-』,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133~161쪽.
- 이윤석, 『춘향전 연구자들의 상상력』, 연민학지 27, 연민학회, 2017, 139~182쪽.
-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1~257쪽.
- 정병욱, 『바람을 부비고 서있는 말들』, 집문당, 1980, 1~358쪽.
-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2』, 신구문화사, 1976, 1~766쪽.
- 정인보 외, 『』, 『』, 5[1930], 1~109쪽.
- 조동일, 『도남학의 전통과 국문학연구의 방향 설정』, 도남학보 3, 도남학회, 1980, 88~93쪽.
-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1~568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of Pansori and Perception  
on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of *Kim Sam Bul*

Kim, Young-hee\*, Kim, Si-yeon\*\*

*Kim Sam Bul* is one of the scholars wh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Joseon Literature*' in modern literature through the educational programs of *Yeonhui University* in the colonial period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Korea's independence, and is a scholar who left clear traces of the research on the texts of '*Gasa(one of the traditional verses and songs of Joseon)*', '*Pansori(the traditional storytelling song of Joseon)*', and historical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This essay analyzes *Kim Sam Bul*'s result of the study of '*Pansori*' and his design for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through his annot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on *Shin Jae Hyo*'s '*Pansori Saseol*' which was his graduation thesis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scription of *Pansori* on his studies on '*Joseon Literature*' which was written after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and traces of him on studies on Korean *Pansori* and classical literature history is examined.

*Kim Sam Bul*'s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has been marginalized and erased from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his studies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day through evolutionary descriptions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Pansori studies. *Kim Sam bul*'s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and design for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have to be studied in order to reflect on the studies of

---

\*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Yonsei University

\*\* PhD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Yonsei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that was distorted by the colonizat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and to rebuil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ith the aim of true decolonization.

**Key Words** *Kim Sam Bul, Shin Jae Hyo, Joseon Studies, Joseon Literature, Sijo, Gasa, Annotation, Pansori, Defection to North Korea,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                    |
|--------------------|
| 논문투고일 : 2020.04.22 |
| 심사완료일 : 2020.05.13 |
| 게재확정일 : 2020.05.17 |